

2023학년도 2학기 제1차 지필평가

2023년 09월 25일 1교시
(국어)과목 과목코드(01) 제3학년

※ 확인사항

- 먼저 시험지 전체 페이지 수를 확인하시오.
- OMR 카드에 성명과 번호, 과목코드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 배점안내

배 점	문 항 수	점 수
선택형	4	20
	5	50
	6	30
계	20	100

[1~4]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물먹는 소 목덜미에
할머니 손이 ㉠얹혀졌다.
이 하루도
㉡함께 지났다㉢고,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
서로 ㉤적막하다㉥고.

- 김종삼, 「㉤묵화(墨畵)」

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점]

- ① 일정한 형식과 규칙에 맞추어 지은 시이다.
- ② 개인의 감정이나 정서를 주관적으로 표현한 시이다.
- ③ 특정 요소의 규칙적인 반복에 따라 생기는 운율이 겹으로 드러난다.
- ④ 선경후정(先景後情)의 시상 전개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 ⑤ 마음속에 그려지는 감각적인 모습이나 느낌을 나타내기 위해 공감각적 심상을 사용한다.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점]

- ① ㉠: '얹혔다' 대신 쓰여 할머니의 수동적인 삶을 보여준다.
- ② ㉡: 소와 할머니의 동반자적 관계가 드러나는 시어이다.
- ③ ㉢: 각운적 요소로서 운율을 형성하고 여운을 남긴다.
- ④ ㉣: 할머니의 쓸쓸하고 외로운 삶을 의미한다.
- ⑤ ㉤: 절제된 언어와 여백의 미가 느껴지는 시의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제목이다.

3. 밑줄 친 표현 중 위 시의 주된 심상이 쓰인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점]

- ① 가을 벌이 따갑다.
- ② 간간하고 짝조름한 / 미역
- ③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 빛
- ④ 그 물로 쌀을 씻어 밥 짓는 냄새 나면
- ⑤ 참새 떼처럼 / 씩씩글썩썩글 / 물리다니는 것도 좋지만

4. 윗글에 담긴 주된 삶의 가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5점]

- ① 인에 쫓기지 않고 여가를 즐기는 여유로운 삶
- ② 나보다 다른 이의 배려하는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삶
- ③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소소한 것에 행복을 느끼는 삶
- ④ 주변의 대상과 함께 삶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며 교감하는 삶
- 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마음 가는 대로 사는 자유로운 삶

[5~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낙은 저녁 찬거리로 텃밭의 가지와 호박을 따다가 잠시 땅바닥에 꾸그리고 앉았다. 뱃속의 아기가 이번에는 좀 더 강한 신호를 보내왔다. 아낙은 ㉠진물이 가시기를 기다려 찬거리를 안아 들고 텃밭을 나왔다. 아궁이에서 밥이 끓기 시작하자 텃밭에서 따 온 가지를 끓고 있는 밥물 위에 올려놓고 호박과 호박잎을 푹푹 썰어 퍽퍽하게 받아 놓은 ㉡뜨물에 된장국을 끓이고 오이채를 썰어 매콤한 오이국을 만들어서 저녁상을 차렸다. 그리고 나서 아이 낳을 ㉢체비를 하기 시작했다.

(나) 물을 데워 놓고 끓는 물에 아기 땀줄 자를 가위를 소독하고 미역도 담가 놓고 안방 바닥에 짚을 깔고 그 위에 드러누웠다. 장에 가서 술 한잔 걸치고 뱃노래를 흥얼거리며 아낙의 남편이 막 사립문을 들어섰을 때 안방 쪽에서 갓 태어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순산이었다. 남편은 늘 그래 왔듯이, 첫째 때도 둘째 때도 셋째 때도 그러했듯이, 술 취한 기분에도 부엌으로 들어가 아내가 미리 물에 담가 둔 미역을 씻어 첫국밥을 끓였다. 첫국밥을 끓여서 아내에게 들여놓아 주고 나서 남편은 사립문 양쪽에 대나무를 세우고 세끼줄에 검은 숯과 붉은 고추를 끼워 대나무에 매달았다. 넷째 아들이 태어나던 날 밤.

(다) 그의 어머니는 그렇게 팔 남매를 낳았다. 집은 토담집이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신접살림을 하면서 손수 지은 집이었다. 판판한 주춧돌 위에 튼튼한 소나무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만들었다. 마을에서는 그렇게 세집 짓는 일을 '성주 모신다'고 했다. 마을 남정네들은 집 짓는 일을 돕고 아낙들은 음식을 만들었다. 황토에 논흙을 섞고 짚을 썰어 지붕 흙을 만들고 밋 사람은 지붕 위로 올라가고 밋 사람은 마당에 길게 서서 다 이겨진 흙을 지붕 위로 올렸다.

대나무나 뽕나무로 미리 살을 만들어 놓은 위에 차진 흙이 발라졌다. 흙이 마르면 노란 짚을 엮어 지붕을 이었다. 이제 그 지붕은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아무리

기센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을 것이었다. 지붕이 다 만들어지자 벽을 만들었다. 지붕에서처럼 대나무로 살을 만들고 흙을 바르고 그리고 구들장을 놓았다. 노란 송판을 반듯반듯하게 쳐서 마루도 만들었다.

<중략>

(라) 석양의 북새, 혹은 낮게 깔리는 굵푹 연기를 보고 그는 ㉔비선거지를 했다. 그런 다음 날은 불림없이 비가 올 것이므로, 비가 온 날 저녁에는 또 지렁이가 밤새 운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똑똑똑 똑똑똑 하는 지렁이 울음소리, 냄새와 소리와 맛과 색깔과 형태들이 그 집에서는 선명했다. 모든 것들이 맑았다. (㉔)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과 아침과 낮과 저녁과 밤이 그 집에서는 뚜렷했으므로, 자연이 그러한 것처럼 사람들의 삶이 명료했다.

(마) 이제 그 집을 떠난 그에게는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 아침과 저녁이 불분명하고 사계절이 불분명하고 오감이 불분명하다. 병원에서 태어나 수십 군데 이사를 다니고 나서 겨우 장만한 아파트. 그 사각진 콘크리트 벽 속에 살고 있는 그의 아이는 여름에 긴팔 옷을 입고 겨울에 반팔 옷을 입는다.

(바) 돈은 은행에서 나고 먹을 것은 슈퍼에서 나는 것으로 아는 아이는, 수박이 어느 계절의 과일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아이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알지 못한다. 아침저녁의 냄새와 소리와 맛과 형태와 색깔이 어떻게 다른지 알지 못한다.

(사) 어머니의 부음을 듣고 그는 그가 나고 성장한 그 노란 집으로 갔다. 팔 남매를 낳고 기르느라 조그마해질 대로 조그마해진 어머니는 바로 자신의 아이들을 낳았던 그 자리에 자신의 몸을 부러 놓고 있었다.

(아) 그 집, 노란 그 집에 탄생과 죽음이 있었다. 그 집 안주인의 죽음 이후 그 집은 적막해졌다. 아무도 그 집에 들어와 살지 않을 것이며 누구도 아이를 그 집에서 낳지 않을 것이며 (㉔) 죽음 또한 그 집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집의 역사는 그렇게 끝이 난 것이다.

(자) 우리들의 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㉔조왕신과 성주신이 살지 않는 우리들의 집은 이제 적막하다. 더 이상의 탄생과 죽음이 없는 우리들의 집은 쓸쓸하다.

우리는 오늘 밤도 쓸쓸한 집으로 돌아들 간다.

- 공선옥, 「그 시절 우리들의 집」

5. 위와 같은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점]

- ① 무형식의 형식이다.
- ② 비전문가도 쓸 수 있다.
- ③ 각자의 개성이 드러난다.
- ④ 일상의 모든 것이 소재가 된다.
- ⑤ 일상의 체험을 담은 중수필(에세이)과 사회적 관심을 담은 논리적인 경수필(미셀러니)이 있다.

6. ㉔~㉔의 사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 ① ㉔: 해산할 때, 고통을 견뎌내고 반복되는 복부의 뭉침
- ② ㉔: 생뜨림, 곡식을 씻어내 부엌에 된 김
- ③ ㉔: 미리 갖추어 차림, 또는 그 일
- ④ ㉔: 비가 오리고 하거나 비가 올 때, 비에 맞으면 안 되는 물건을 치우거나 덮는 일
- ⑤ ㉔: 가정에서 모시는 신의 하나, 김의 건물을 수호하며, 가신(家神) 가운데 맨 윗자리란 차지함.

7. 윗글에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단락은? [6점]

- 서술 시점의 변화가 보인다.
- '그'의 이야기가 특수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보편적 이야기임을 드러낸다.

- ① (가) ② (다) ③ (바) ④ (아) ⑤ (자)

8. 윗글의 토담집에서의 삶과 우리의 현재 삶을 대비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6점]

		토담집에서의 삶	현재(아파트)의 삶
㉔	누가	'그'	'그'의 아내
②	탄생	부모님이 손수 지은 집에서 태어남	병원에서 태어남
③	성장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감	자연과 단절됨
④	성장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살아감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며 살아감
⑤	죽음	어머니가 토담집에서 돌아가심	더 이상의 죽음이 없음

9. (다)의 토담집 건축 과정을 <보 기>에서 순서대로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점]

< 보 기 >

- ㉔ 주춧돌 위에 튼튼한 소나무로 기둥을 세운다.
- ㉔ 대나무로 살을 만든 후에 흙으로 벽을 만든다.
- ㉔ 방바닥에 구들장을 놓고 노란 송판으로 마루를 만든다.
- ㉔ 대나무나 뽕나무로 만든 살에 흙을 바른 후 노란짚을 엮어 지붕을 만든다.

- ① ㉔→㉔→㉔→㉔ ② ㉔→㉔→㉔→㉔
- ③ ㉔→㉔→㉔→㉔ ④ ㉔→㉔→㉔→㉔
- ⑤ ㉔→㉔→㉔→㉔

10. 윗글의 ㉔, ㉔에 들어갈 접속사가 가장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4점]

- | | | |
|---|------|------|
| | ㉔ | ㉔ |
| ① | 그리고 | 그러나 |
| ② | 그리고 | 그래서 |
| ③ | 하지만 | 하지만 |
| ④ | 왜냐하면 | 그러므로 |
| ⑤ | 그래서 | 그렇지만 |



11. 음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점]

- ① 분절 음운에는 자음과 모음이 있다.
- ②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의 단위이다.
- ③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심리적이고 관념적인 소리이다.
- ④ 소리의 길이에 따라 단어의 뜻을 구별하는 경우 소리의 길이는 음운에 해당된다.
- ⑤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면서 도막으로 나눌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시 2가지로 분류된다.

12. 음운의 소리 및 발음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 ① 'ㅈ'은 전입천장과 혀바닥 사이에서 나는 소리이다.
- ② 'ㄱ'은 여린입천장과 혀 뒤 사이에서 나는 소리이다.
- ③ 먹는 '밤'을 발음할 때는 혀가 저서 어두운 '밤'을 발음할 때보다 길게 발음한다.
- ④ 'ㅈ'을 발음할 때는 'ㄱ'을 발음할 때보다 입을 더 크게 벌려 혀의 위치를 높혀서 발음한다.
- ⑤ 'ㄷ'을 발음할 때는 'ㄱ'을 발음할 때보다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더 뒤쪽으로 가면서 발음이 된다.

[13~14]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음은 소리 내는 방식에 따라 다음의 다섯 가지로 나뉜다.

(㉠)은 'ㄱ'과 같이 공기의 흐름을 잠시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내는 소리에는 (㉡)이 있습니다.

(㉢)은 'ㅅ, ㅎ'과 같이 입안이나 목청 사이의 통로를 좁혀 그 틈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 마찰을 일으켜 내는 소리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내는 소리에는 'ㅅ, ㅆ, ㅎ'이 있습니다.

(㉣)은 'ㅈ'과 같이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서서히 터뜨리면서 마찰을 일으켜 내는 소리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소리 내는 자음에는 'ㅈ, ㅊ, ㅊ'이 있습니다.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은 발음할 때 공기가 입으로만 나가지만, 'ㅇ'과 같은 (㉤)은 공기가 코로도 나갑니다. 즉,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소리를 냅니다. 이런 방식으로 내는 소리에는 'ㅇ, ㄴ, ㅇ'이 있습니다. 한편 (㉥) 'ㄹ'은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 떼거나, 혀끝을 윗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려보내면서 내는 소리입니다.

13.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4점]

	㉠	㉡	㉢	㉣	㉤
①	마찰음	파찰음	파열음	유음	비음
②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유음
③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
④	파찰음	마찰음	파열음	비음	유음
⑤	파찰음	파열음	마찰음	비음	유음

14. ㉡에 해당되는 자음을 모두 적은 것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5점]

- ① ㄱ, ㄴ, ㅇ, ㅈ, ㅊ, ㅊ, ㅈ
- ② ㄱ, ㄴ, ㅅ, ㅈ, ㅊ, ㅊ, ㅈ, ㅈ
- ③ ㄱ, ㄴ, ㄹ, ㅈ, ㅊ, ㅈ, ㅈ, ㅈ
- ④ ㅅ, ㅆ, ㅈ, ㅊ, ㅊ, ㅈ, ㅈ, ㅈ
- ⑤ ㅅ, ㅆ, ㅈ, ㅊ, ㅊ, ㅈ, ㅈ, ㅈ

[15~16]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모음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모음을 (㉠)이라 한다. '표준어 규정'은 원칙적으로 'ㅏ, ㅗ, ㅓ, ㅕ, ㅗ, ㅓ, ㅕ'를 (㉡)으로 발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발음 도중에 변하는 모음은 (㉢)이라 하는데, (㉢)은 홀로 쓰일 수 없는 소리인 (㉣)이 단모음과 결합한 모음이다. 예를 들어 (㉣)의 발음은, 'ㅣ'를 짧게 발음하는 것과 유사한 소리인 반모음 'ㅟ' 뒤에서 'ㅏ'가 결합한 소리이다. 마찬가지로 'ㅗ, ㅓ, ㅕ, ㅗ, ㅓ, ㅕ'의 발음은, 각각 반모음 'ㅟ'와 단모음 'ㅏ, ㅗ, ㅓ, ㅕ, ㅗ, ㅓ, ㅕ'가 결합한 소리이다. 'ㅏ'나 'ㅓ'를 짧게 발음하는 것과 유사한 반모음 'ㅟ'도 있는데 (㉤), 'ㅗ, ㅓ, ㅕ'의 발음은 각각 반모음 'ㅟ'와 단모음 'ㅏ, ㅗ, ㅓ, ㅕ'가 결합한 소리이다. 반모음이 단모음 뒤에서 결합한 소리인 'ㅟ'를 제외하고, 이중 모음의 발음은 모두 반모음이 단모음 앞에서 결합한 소리이다.

'ㅏ'와 'ㅓ'는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에서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다. 'ㅏ'를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경우에는 반모음 'ㅟ'와 'ㅏ' 소리를 연속하여 발음하며, 'ㅓ'를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경우에는 반모음 'ㅟ'와 'ㅣ' 소리를 연속하여 발음한다. '표준어 규정'에서도 현실 발음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ㅏ'와 'ㅓ'를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15.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점]

	㉠	㉡	㉢	㉣	㉤
①	단모음	빈모음	이중모음	ㅕ	ㅗ
②	단모음	이중모음	반모음	ㅕ	ㅏ
③	단모음	이중모음	반모음	ㅕ	ㅏ
④	단모음	이중모음	반모음	ㅕ	ㅗ
⑤	반모음	이중모음	단모음	ㅕ	ㅓ

16. 밑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6점]

- ① 반모음에는 [j]와 [w]가 있다.
- ② '니'를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한다.
- ③ 이중모음을 발음할 때에는 반모음이 단모음과 결합한다.
- ④ '니'와 '위'를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 경우 [w]가 결합한다.
- ⑤ 이중모음의 발음은 단모음 뒤에 반모음이 결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7~2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남북의 언어는 언뜻 보면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사소통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맞춤법이 조금 다르고 어휘 차이가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아주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보다도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 오해와 불신이 생기게도 될 것입니다.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이 일어질 수도 있어요. 언어의 차이가 남과 북이 교류하고 화합하여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남북은 서로 말의 차이를 이해하고 조정하여 남북한 언어의 동질성을 회복해야 해요. 이제 저와 함께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살펴보고, 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기로 해요.

지금 남한에서는 '한글 맞춤법(1988)'을 따르고 있고, 북한에서는 '조선말 규범집(2010)'을 따르고 있어요. 이 둘은 1933년 조선어 학회가 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을 뿌리로 하고 있지만 분단 이후 서로 교류 없이 각자 맞춤법을 수정해 왔기 때문에 차이가 생기게 되었지요.

(나) 다음 두 문장을 비교해 보세요.

남한 나룻배를 이용하여 강을 건널 것이다.
북한 나루배를 리용하여 강을 건널 것이다.

어떤 점이 다른지 살펴볼까요? ㉠남한에서는 사이시옷을 써서 '나룻배'로 표기하는데, 북한에서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고 '나루배'로 써요. 또 ㉡남한에서는 두음 법칙을 인정해 '이용'이라고 쓰지만, 북한에서는 두음 법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리용'이라고 표기해요. 마지막으로 띄어쓰기가 달라요. 남북한 모두 '단어 단위'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북한은 붙여 쓰는 경우를 남한보다 넓게 잡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의 '건널것이다'처럼 의존 명사를 붙여 써요.

(다) 남한에서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표준어로 정해서 쓰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평양말을 표준으로 한 '문화어'를 쓰고 있어요. 분단 초기에는 북한에서도 서울말을 표준어로 인정하다가,

1966년에 문화어를 제정해서 보급했는데 이 때문에 남한의 표준어와는 차이가 생기게 된 것이지요.

(라) 남한을 기준으로 볼 때, 남한과 다른 북한의 어휘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은 북한의 방언을 문화어로 삼은 어휘예요. 북한에서 문화어를 정할 때 평안 방언이나 함경 방언을 적지 않게 문화어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남한에서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거나 쓰지 않는 어휘가 문화어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어의 '게사니', '가마치', '땅뎡'은 표준어의 '거위', '누룽지', '땃돈'에 해당하는 말로, 원래 방언이던 것이 문화어가 된 것이예요.

17. 밑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점]

- ① 남북의 언어는 맞춤법의 차이가 크다.
- ② '거위', '누룽지'는 북한의 방언이던 것이 문화어가 되었다.
- ㉠ 남북한 맞춤법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 ④ 남한은 단어 단위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고 북한은 의미 단위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 ⑤ 북한에서는 서울말을 표준어로 인정한 적이 없어서 남한의 표준어와 북한의 문화어에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18. 북한 사람에게 ㉠과 관련하여 사이시옷에 대해 설명한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6점]

- ① 갑: 사이시옷은 두 명사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붙는데, 결합하는 두 명사 중 하나 이상이 고유어이고, 앞 단어가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야.
- ② 을: 그레 '갑'이 말한 조건을 만족한 다음,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날 때,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날 때, 뒷말의 첫소리 모음 'ㅏ, ㅑ, ㅓ, ㅗ, ㅛ, ㅜ'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날 때 사이시옷을 붙여 적어.
- ③ 병: 예를 들어 '꼭짓점'은 고유어 '꼭지'에 한자어 '점(點)'이 합쳐진 단어이고 [꼭찌점]과 같이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 'ㅉ'으로 나므로 사이시옷을 넣어 '꼭짓점'으로 적으면 돼.
- ④ 정: [빈물]로 소리 나는 '빚물', [된:넌]로 소리 나는 '뒤틀'도 사이시옷을 붙여 적는 예에 해당한다.
- ㉡ 무: 두 음절로 된 합성어 성격의 한자어에도 사이시옷 받침을 적는데 [개:수]로 소리나는 '개수(個數)'도 사이시옷을 붙여 적는 예에 해당하지.

19. ㉠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6점]

- ① 갑: 두음 법칙은 어떤 소리가 단어의 첫머리에서 발음되는
○ 것을 끼리 다른 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을 말해요.
② 을: 그 중 하나가 유음 [ㄹ]이 단어의 첫머리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③ 병: 한자음 가운데에 본래의 소리가 [ㄹ]인 것이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ㄹ]이 발음되지 않거나 [ㄴ]으로
변하게 되는데, 특정한 경우에는 [ㄴ]도 첫머리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④ 정: 그렇죠. 'ㄴ, ㄷ, ㄹ; ㄴ, ㄷ, ㄹ' 모음 앞에는 [ㄴ]이 첫
머리에 나올 수 없어요. 따라서 [ㄹ]이 [ㄴ]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발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죠.
⑤ 무: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 국어에서 널리 쓰이게
된 때도 'ㄹ'을 초성표기에 쓰지 않아요.

20. 다음은 ㉡과 관련하여 남한에서의 의존 명사 및 의존
명사의 띄어쓰기에 대해 이야기 나눈 대화이다.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한 사람은? [5점]

- 갑: 의존 명사는 자립성이 없어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지만
명사의 기능을 하는 단어야.
을: 남한에서는 단어를 띄어쓰기의 기본 단위로 삼아 단어
별로 띄어쓰기 때문에 의존 명사도 단어이므로 앞말과
띄어서 쓰지.
병: '랑'은 어떤 행동을 함께 하거나 상대로 하는 대상임을 나
타내는 의미의 의존 명사이므로 '철수 랑 영화'처럼 앞말과
띄어 써야 해.
정: 낱으로 된 물건을 세는 단위인 '개'는 의존명사로 '한 개'처럼
앞말과 띄어 써야 해.
무: '만큼'은 앞의 내용에 상당한 정도임을 나타내는 의미의
의존 명사이므로 '노력한 만큼'처럼 앞말과 띄어 써야 해.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 확인사항

- OMR 카드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오.
- 이 시험문제의 저작권은 낙원중학교에 있습니다. 저작
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진제와 복제
는 금지되며, 이를 이길시 저작권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